

음식과 수행

신이 주신 열매, 노니

해독작용과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 노니

중국 남부지방이나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여행 안내원이 소개하는 상점에 노니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노니는 동남아시아에서 열대아시아 해안지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 남단의 섬인 하이난에는 넓은 밭에 노니를 재배한다. 인도와 하와이에서는 식품과 약으로 사용되며 인도에서는 인도뽕나무, 바리브레안에서는 진풍제나무, 호주에서는 치즈과일 등으로 불린다. 동의보감에서는 해파극(海巴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노니의 다양한 효능으로 인해 생긴 이름들이다.



노니 열매는 크기가 약 10cm로 감자처럼 생겼으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패인 자국이 있다. 열매가 익으면 황백색의 껍질이 알아져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기가 되면 맛을 느낄 수 없던 열매가 불쾌한 맛을 내고 썩은 치즈와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된다.

요즘 다이어트 식단과 방법에 노니는 거의 빠지지 않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니에는 다양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우선 시스테인, 아르긴인, 시스틴, 글루타민, 글리신, 세린, 티노신 등 다양한 18종의 아미노산은 물론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노니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인체에 불필요한 성분을 해독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밖에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나쁜 독소를 해독하여 지방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노니는 혈액순환, 고혈압 예방, 항염증, 항암효과, 항산화효과, 노화방지, 피부미용, 면역력 증진 기능, 진통효능, 남성 스테미너에 좋다. 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 스테미너를 상승시키고 피로를 없애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면역기능을 높여 염증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또 노니의 쓴 맛으로 심장의 열을 내려줘 심장 기능강화, 혈액 순환 개선을 통해 혈압을 감하시켜 준다.

보르네오에서는 노니 주스를 당뇨병이나 위염 치료제로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이 열매를 술로 만들어 먹으면 근육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노니 열매는 소화를 돕고 기침, 천식에 도 효능이 있으며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다. 뿌리를 말린 것으로 타박상과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효능들이 있지만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니 속에는 의외로 칼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먹거나 고칼륨혈증,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섭취를 삼가야 한다. 그리고 노니주스에는 독성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또는 과도 음용시 복통과 설사를 동반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성을 제거하려면 뛰어난 정제기술이 필요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노니를 파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정제기술이 부족하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6회>

은혜 입지 않은 죄인들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영의 세력이 온다

- 4절: 학생으로 사랑을 아긴 피
-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 5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 1) 두 천사의 생수체험
  - 2) 이한 검의 안찰과 환돌 위에 소사
  - 3)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 4)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

2) 이(利)한 검의 안찰과 환돌 위의 소사

(전호에 이어서) 그리하여 이번에 행할 안찰은 지난번에 있었던 꿈 안찰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장로의 입을 빌려 광장히 아플 것이라고 운을 댄 것입니다. 꿈 안찰로 폐결핵 3기의 병마가 이미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행하는 안찰은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신앙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예수의 영을 깨끗이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되는 박장로의 손이 일곱째 천사의 배에 닿아 안찰을 시작하니, 일곱째 천사는 마치 칼로 생살을 도려낼 때 당하는 고통처럼 무지하게 아팠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다섯째 천사의 손을 통하여 일곱째 천사의 복부를 강렬하게 내리찍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한 검이 되어 일곱째 천사의 복부 깊숙이 파리를 들고 있는 예수의 영을 사정없이 난도질하여 꺾어버렸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스물세 살 때에 신학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인생들에게 지옥을 사후 천당이라고 겁주듯이 속이는 대마귀의 사자임을 어느 정도 간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기만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오직 지옥이 천국과는 상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르는 값이라고 했고 또한 죄값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생들이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가 없다가 됨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확실한 실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자신 속에 신앙의 주(主)로 삼았던 예수가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이한 검의 안찰을 받는 순간에 즉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이한 검에 찔려 죽어가면서 생명이 되는 일곱째 천사의 양심(하나님의 영)을 끌어안고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박장로를 따르던 150만 명의 전도관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했다

여기에 얽힌 비화가 있는데,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을 따르던 150만 명의 전도관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양심을 불모로 삼고 있는 예수가 사탄의 사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적인 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여야 인간의 마음속에서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경우가 찾아지고, 그 틈을 포착하여 하나님께서 이한 검의 안찰로 예수의 영을 구분해서 죽이고 불모로 잡혀 있는 양심을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를 통해 일곱째 천사를 완성자로 키우는 데 성공하자, 다섯째 천사를 따르던 150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여태껏 주(主)라고 믿고 왔던 예수가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새끼다!”라고 공표하셨지만 15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150만 교인들은 30년간 다섯째 천사를 따르는 동안 수없이 안찰을 받았지만, 그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의 육군 중위 시절 모습

이 받은 안찰은 병마를 죽이고 치유하는 저급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단 한 번도 예수의 영(사자 마귀)을 죽이는 이한 검의 안찰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3)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서른 살의 나이에 소사 신앙공동체(신앙촌)를 방문하여 다섯째 천사로부터 이한 검의 안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일곱째 천사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찰을 받은 일곱째 천사는 세상의 유행이나 인공적인 향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상의 향취를 맡는 체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상의 향취는 하나님의 생수에서 퍼져 나오는 것으로 불멸의 생명력과 영원한 쾌락을 주는 신의 입자(원)인 것입니다.

이한 검의 안찰을 받은 일곱째 천사는 신앙공동체마을을 떠나 논산훈련소로 가는 동안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동동 떠서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에서 뱃속까지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듯 강하게 생수연결이 되는 가운데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에서

나오게 되니,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은 죄인들인지라 그들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오염 받아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으로 일곱째 천사는 걸어서 소사에서 영등포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늘 주장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사에서 걸어서 영등포까지 온 일곱째 천사는 기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될 때에도, 죄인의 몸에서 방출되는 선악과 세력이 오염이 될까봐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기차 칸막이의 난간에 서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차장이 “장교님, 위험하니깐 열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니, 일곱째 천사는 좌석에 앉으려 가는 척하다가 여객차장이 멀찍이 가면 도로 기차 칸 사이로 가서 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주일마다 소사 신앙공동체마을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열차를 타고 갈 적마다 기차 칸 사이에서 서서 가기에, 여객차장들이 “저 장교님은 저렇게 서서 가시는 것이 좋은가봐” 하면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육군 중위 시절, 논산 훈련소에서 부천에 있는 소사 신앙촌까지 영모임을 밟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논산역 앞에서 낚시가 더워서 모자를 벗고 나오는데 갓 쓴 웬 할아버지가 낚초 세뱃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젊은 청년 장교인데, 갑자기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절을 하니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계속)\*

박한수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려고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나를 죽이는 비결은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봐야

나를 항상 버려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지만, 모든 종교는 나를 이기라고 했고, 나를 없애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나를 없애버려야 나를 죽여 버려야, 우리들이 하나님(부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천당(극락)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그대로 살려 두고는 천당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방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총력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심취하여 자신을 잃곤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예배시에 찬송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찬송을 해야 '나'라는 의식이 죽는 것이다.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구슬땀이 줄줄 흐르면서 집중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얼굴색이 불그스름하지

만, 얼굴이 하얀 사람은 집중력을 가지고 찬송을 안 부르기 때문이다. 찬송 인도하는 구세주님도 찬송을 불러도 목이 터지라고 불렀지, 언제 한번 고운 목소리로 찬송해본 적이 없는고로 초창기에는 지금이나 항상 목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구세주를 낳은 영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찬송 인도 시(時)에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집중력을 가했던 것이다. 찬송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일을 할 때에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대로 집중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면 은혜가 연결되는데, 그 은혜 연결은 마귀가 죽었기 때문이요 '나'라는 의식이 죽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 없게 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향취 냄새를 맡는다. 생수 연결이 된다 하는 그 시간은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며, '나'라는 의식이 죽어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다.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함으로써 생수연결이 되고 이슬성신의 은혜가 강하게 임함

향취 냄새가 저절로 나는 것 같지만 바로 향취 냄새라는 것은 이슬성신에 대한 냄새이다. 이슬성신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았 있기 때문에 향취 냄새가 나고 또한 생수연결이 되는 것이다.

생수 연결을 체험하는 사람은 알지만 입안에서부터 뱃속까지 시원하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무아경지(無我境界)에 이르러야 가능한 은혜체험이다. 도(道)를 닦아 성도(成道)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영생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向)하는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상태가 집중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구세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구세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 구세주가 은혜를 부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면 은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成道)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구세주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

고 구세주를 나와 대등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야 영육(靈肉)간에 변화가 오는데, 특히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할 때에는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다.

생명자(生命子)가 핏속에 많이 존재할 때 그는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총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집중적으로 구세주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나 하나를 전부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구세주의 설교 말씀은 이 세상 살 군 목자들의 우스운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시간에 구세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듣게 되면, 구세주의 말씀이 집중해서 듣는 사람의 핏속에 녹아들어가 생명자(生命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게 되

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핏속에 존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자(生命子)가 많기 때문이다.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인 생명자(生命子)가 바로 핏속에 많이 존재할 때 그는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축복을 받으려면 총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봐야지 예배 보는 시간에 잠념을 가지고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생각,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나왔다가 그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에 빠져 버리면 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은 눈동자가 그대로 쫓혀 있는 그 상태로 처음부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야 된다. 절대로 은혜라는 것은 뽕 위에 임하지 않는다. 뽕 같은 죄인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인이 은혜를 갈망해서 매달리면 '나'라는 주체의식인 죄(罪)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향취 냄새가 나고 생수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안 되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제단은 은혜의 장소인고로 항상 제단에 머물면서 찬송과 기도 생활해야

집은 마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육의 몸이 거하는 장소인고로 그런고로 은혜가 되지 않지만 제단에는 항상 은혜가 내리는 제단인고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항상 찬송 부르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천당을 가는 것이지,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도 힘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벌써 그 예배 보는 태도가 다르다. 기를 쓰면서 애를 쓰면서 찬송을 하고, 집중적으로 단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하나 하나를 전부 기억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찬송가를 다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소리내어 흥내를 낸다 하는 자세로 예배를 보는 사람은 결단코 천당 문턱도 못 간다.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에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면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집중을 다하면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2일째>